

# 변압기 시장 호황... 업계, 증산·공장 확보 등 '노 젓는다'

2031년 시장규모 4800억弗 예상 HD현대일렉트릭 '깜짝실적' 기록 2분기 매출 9169억, 영업이익 2100억 美 초고압변압기 공장 9월 마무리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세계적인 수요확대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한창 진행돼 변압기 업체들이 호재를 맞이했다. 업계는 꾸준한 증산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시장 수요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전방 수요도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수주 또한 장기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변압기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2억 6030억 달러에서 2031년까지 4800억 511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장과 전기화 추세에 따라 전력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압기 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분주하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나 가정에 보낼 때 그에 맞게 전압을 바꿔 주는 기기다. AI 데이터센터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초고압 변압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들은 미국발 초고압 변압

기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변압기 업체의 호실적을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예상을 크게 웃돌아 이목을 끌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169억원, 영업이익 2100원을 기록했

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7%, 257.1%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분사 이후 최대 규모다. 수주 규모도 크게 늘어 2분기 수주액은 8억 8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23억 1800만달러를 기록, 연간 수주 목표 37억 4,300만달러의 61.9%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2억 5200만달러를 채우며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실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LS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2조 8000억원 규모다.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만드는 효성중공업도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북미, 유럽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공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작업을 오는 9월 마무리할 예정

이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 공장을 2026년 증설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 진행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 인프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될 경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전력공급 부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중장기 실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악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도 산업의 흐름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변압기 시장의 호황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대선 진행 상황 외에도 다양한 상황 추이를 지속 관찰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 증가로 장기간 변압기 업계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정현 기자 hyeon@metrosool.co.kr

##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업체 4.6% 늘었다

2022년 취급업체 3만8829곳서 총 3만2910종 취급... 4.1% 증가

화학물질 종류와 이를 취급하는 업체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8829개 사업장에서 3만 291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4.6%(1722개), 화학물질 종류는 4.1%(1310종) 증가하면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998년부터 4년마다 조사를 시작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014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

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 기준량을 초과해 취급하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2022년 1~12월 진행됐다.

화학물질 취급량을 형태별로 나눠보면 ▲제조량 5억7709만톤(t) ▲수입량 3억7242만 t ▲사용량 11억6087만 t ▲수출량 1억2924만 t으로 집계됐다.

4차 조사와 비교하면 제조량은 0.6%(348만t), 수입량은 6.2%(2,178만t), 수출량은 3.3%(414만t) 증가했다. 사용량의 경우 28.4%(4억6014만t) 감소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3.7%를 차지했다. 이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3.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해화학물질 제조량은 7000만t, 수입량은 1340만t, 사용량은 6640만t, 수출량 1940만t으로 총 1억6920만t이 취급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제조량, 사용량, 수출량은 각 10.5%, 27%, 9.8% 감소했고 수입량은 6.4% 증가했다.

2020년에 대비 제조량이 증가한 물질은 철슬래그(440만t), 알루미늄(280만t), 납사(270만t), 휘발유(260만t) 등이다. 철(-960만t), 산소(-670만t), 과산화수소(-610만t), 산화칼슘(-370만t)은 2년 전보다 제조량이 줄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규제특례 승인기업 대상 175억 펀드 결성

산업부, 로봇·헬스케어 등 중심 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175억원을 최초 결성하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분야 중심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원을 달성했고, 7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175억원까지 확대됐다.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www.intervalup.com) 또는 이메일(contact@intervalup.com)로 투자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빅픽처스, 아르고스디자인, 아이베브, 엘토브, 이온어스, 플레토 등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다. 펀드 운용사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체 임직원의 70% 부울경 동남권 연구

에어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에어부산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에어부산이 지역 내 알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의 70%가 부·울·경 동남권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중 부·울·경 동남권 지역을 연구로 한 직원 비율이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한다. 동남권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약 20% 중반대의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 권역별 인원이 각 1% 수준이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이전의 부담을 덜고 연구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동남권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앞장서 왔다. /박대성 기자 iunm@s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교육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지역	주요내용
바이오	충북·오송	·산업계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 cGMP 인증 및 생산 역량강화 교육
미래차	대구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모터 설계·검증 및 응용기술 교육
	광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자율차 소부장 디지털 전환 교육
반도체	부산	·전력반도체 소자설계·제조공정·모듈 시험분석 원스톱 교육
	경기·안성	·반도체 연마/세정 공정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 소부장 특화단지서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산업부, 재직자 교육사업 공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27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25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사업은 오송(바이오),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공공연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오송단지의 경우 미국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을, 대구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설계·검증 관련 내용을, 부산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 25일~8월 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전,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시장 첫 발

중소·현지 전력대학교와 MOU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전력대학교인 IT PLN, 국내 에너지 혁신기업 타이드 코리아 및 차지인과 함께 '전기차충전 수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참여사들과 협력해 전기차충전 자동결제 시스템 개발과 현지 맞춤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인니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의 브랜드파워와 중소기업 우수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분야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의 현지 사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MOU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등 정부 인사와 국영전력회사(PLN) 등 전력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